

‘오거리 상송’ 시비 제막 목포 문화 뿌리 되살린다

재경 향우·시민 성금으로
무안동에 첫 민간 문학비 건립
예향의 문화와 예술 부활 염원

향구도시 목포의 중심지였던 60년 전 오거리의 정취와 아름다움을 노래한 ‘오거리 상송’ 문학 시비(詩碑)가 출향인사와 시민들의 성금으로 건립돼 눈길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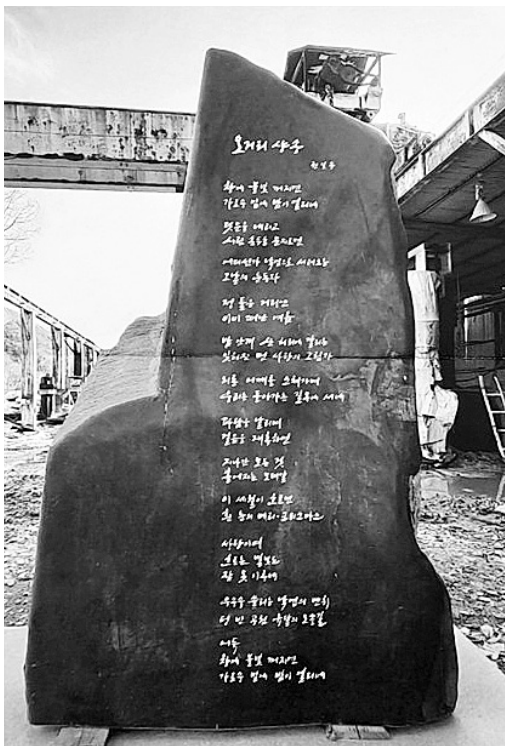
목포 오거리상송 시비건립위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무안동 청소년문화센터 앞마당에서 ‘오거리 상송’ 시비 건립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거리 상송’ 시비는 ‘높이 3m, 너비 1.5m의 까만 빛돌 오석으로 건립됐다. 재경 출향인사 55명과 목포시민 30여명이 목포오거리의 문화 역사를 되살리자는 취지에 적극 동참하면서 10개월 만에 이뤄진 첫 민간 문학비이다.

시비에는 “창에 불이 꺼지면 가로수 밑에 밤이 열리네...”로 시작되는 고(故) 권일송 시인의 글귀가 새겨져 있다. 시인은 1960년대 목포에서 영흥·문태고등학교 교사와 문인활동을 하면서 당시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던 4계절 불야성의 목포 오거리 정취를 시에 담아 표현했다.

배종덕 시비건립위원장은 “1960~70년대 활력 넘치던 목포 오거리의 현장 문화를 알리는 첫 시도에 동참해준 인사들의 목포사랑 정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앞으로 오거리 상송을 노래로 만들어 오거리의 전설과 부활을 전국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시비 건립이 원도심 문화와 역사를 비



‘오거리 상송’ 시비. <시비건립위원회 제공>

추는 새로운 핫 플레이스로 침체에 빠진 원도심의 문화를 조명하고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미희 목포시 문화지원팀장은 “시비 건립에 따른 공공조형물 경관심의위원회 절차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면서 “오거리 상송 문학비 건립으로 예향 목포의 문화와 예술이 생동감 넘친 오거리 현장을 묘사한 시인의 언어를 통해 탐방객들이 직접 상상하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진도군, AI 공공학습 플랫폼 이달 운영

중·고생 830명 학습 서비스

진도군이 ‘AI 스마트 학습’ 프로그램인 ‘일취월장’ 디지털공부방 시스템을 이달 중순부터 누리집을 통해 운영한다.

‘일취월장’ 디지털공부방 시스템은 진도군이 과학교육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이다.

학생 개개인의 AI 학습 진단을 통해 맞춤형 문제를 제공하는 ‘AI 에듀케어’와 대학생들을 관내 중·고등학생과 연결하는 1대1 화상수업으로 진행된다.

‘AI 에듀케어’는 관내 중학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 약 830명에게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총 5개 과목에 대한 학습 서비스와 함께 실시간 문제 풀이와 해설을 제공한다.

1대1 화상수업은 ‘고2 집중케어’를 포함해 80

명을 해당 학교의 추천을 받아 선발, 진로 상담과 자기주도학습 공부법 등을 알려주며 취약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교육이다.

한편 진도군은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1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 추진하고,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도 지난해부터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진도군은 또 교육 관련 예산을 민선 7기 22억원에서 민선 8기에는 2배 이상이 증액된 45억원을 투입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교육혁신의 담대한 변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생태계를 조성, ‘아이날고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지역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세계 바둑 전설들 신안 집결...5~7일 ‘월드 바둑 챔피언십’

조훈현·이창호·유창혁·루이나이웨이 등 8국 45세 이상 대표 참가

신안군은 5일부터 7일까지 라마다 프라자 자은도에서 제6회 월드 바둑 챔피언십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재)한국기원이 주최·주관하고 전라남도과 신안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미국, 호주, 루마니아 등 세계 8개국에서 45세 (1980년생) 이상의 각국 대

표 선수들이 참가하여 기력을 겨룬다.

이번 대회에는 영화 ‘승부’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조훈현 9단과 이창호 9단을 비롯해 제2회, 3회, 5회 대회에서 3차례 우승을 거머쥔 디펜딩 챔피언 유창혁 9단이 한국 대표로 출전해 또 한 번의 우승을 노린다. 또 루이나이웨이 9단, 저우허양 9단, 아마시타 게이코 9단, 왕밍완 9단 등 세계

바둑계의 전설적인 기사들이 대거 참가한다. 특히 신안이 배출한 세계적인 바둑 스타 이세돌 9수(國手의) 형인 이상훈 9단도 이번 대회에 함께 참가해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한국 바둑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바둑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방과 후 바둑 교실 운영 등을 통해 바둑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완도 해조류 양식기술 배우자”...세계은행·개도국서 발길

세계은행 지원 13개국 44명 방문
해조류박람회 후원 등 협력체계

세계은행(WB)과 개발도상국 관계자들이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완도군을 방문해 해조류 양식기술 등에 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완도군에 따르면 세계은행 관계자와 케냐·탄자니아·세네갈·모잠비크 등 13개 개발도상국 공무원 44명이 최근 완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은 개도국 공무원들이 완도 해조류 양식기술 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은행 관계자와 개도국 공무원들은 신우철 완도군수로부터 수산업 현황, 양식 기술 등 해조류산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어 다시마·전복 양식장과 (재)전남바이오진 흥원 해양바이오연구소, 해조류 가공 업체 등을 방문했다.

세계은행은 해조류 양식기술 협력은 물론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후원키로 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해조류 양식기술 연구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완도를 찾은 세계은행 관계자와 케냐·탄자니아·세네갈·모잠비크 등 13개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이 신우철 완도군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이들은 부산에서 열린 ‘글로벌 해조류 서밋(Global Seaweed Summit)’에도 참가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 해조류의 우수성과 양식시스템을 해외에 전파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

며 “해조류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세계 각국과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부장 ejhung@

영광형 키즈카페 건립 속도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

영광군이 공약사업인 ‘영광형 키즈카페’ 건립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영광군은 최근 청사 소회의실에서 ‘영광형 키즈카페 건립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키즈카페 건립은 장세일 군수가 지난해 재선거 출마 당시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이다.

지역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목표다.

이번 용역은 오는 10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다.

지역 수요·인구 변화 분석, 시설 기능·규모 설정, 적정 입지 선정, 운영방식·프로그램 구성, 경제성·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을 추진한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영암군, 지역맞춤형 밥맛 좋은 쌀 품종 육종

농기센터 시험포장에 시험구 조성

영암군이 지역맞춤형 밥맛 좋은 쌀 품종 육종에 나섰다.

영암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벼 시험포장에서 손모내기 실시하고, 밥맛 좋은 쌀 품종9의 생산력 검증 예비시험을 위한 시험구 조성에 들어갔다 고 밝혔다.

영암쌀 품종육종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시험구 조성은 지역에 최적화된 고품질 쌀 품종 개발을 위한 첫걸음이다.

군은 ‘생산력검정 분시험’, ‘지역 적응시험’ 등

의 과정을 거쳐, 2030년 품종 등록과 현장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품종육종사업으로 밥맛이 우수하고, 흰알마름병 등 병해충에 강하고 지역환경에 잘 맞는 고유 품종 개발에 나섰다.

이번 시험구에서는 지난해 선발된 우량계통 11개체의 수량성과 재배 적응성 등을 검증한다.

우승의 영암군수는 “밥맛 좋고 병해충에 강한 영암쌀은 지역 쌀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자산이다”이라며 “행정적·기술적 지원으로 전국에서 인정받는 영암쌀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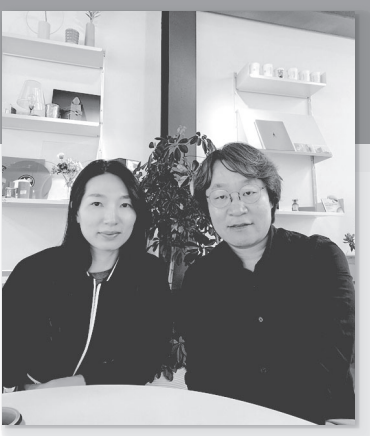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